

5·18 왜곡·편취 용서 안돼...국가 차원 5·18 진상규명위 탄력



눈물 흘리는 문재인 대통령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씨의 편지낭독을 들으며 눈물로 눈물을 닦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문대통령 5·18진상규명 강조... 후속조치 기대

국방부에 헬기사격 자료 등 폐기 말라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광주시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른 시간 내에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표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기념식장에서뿐만 아니라, 5·18 관련단체들과도 오찬을 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관련, 이제 실무진에서 어떤 절차로 할지 지금부터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실무진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논의한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답변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상 규명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표 명령자와 헬기 기총사사 책임자 규명 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정치권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당·정의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입

장도 긍정적이다. 이미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협조의 뜻을 이미 밝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과 편취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회에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광주시도 5·18 법률 자문관을 통해 역사 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대처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 등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영렬·안태근 동반 사의...靑 “수리 불가”

‘돈봉투 감찰’ 지시 하루만에 고강도 검찰로 검찰 개혁 압박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로 검찰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동반 사의를 밝히면서 새 정부 들어 예고된 검찰의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질타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나선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단단히 벌려 온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두 검찰 핵심 간부가 조직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오후 보고받고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보고

를 경청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검찰 간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규정상 원칙을 지키면서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즉,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해서 검찰개혁을 압박할 것이라 관측이다. 청와대는 또 이날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검찰개혁안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전달 신속하게 공개한 데 이어 후속조치 상황도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봉투 격려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감찰 지시 및 진상규명 의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물론 정운하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방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靑 “새정부 명칭 별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거제시 대통령 생가복원 우려”

새 정부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별도의 정부 명칭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처럼 지정할 계획은 없다. 실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할 수도,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고 했으나, 이날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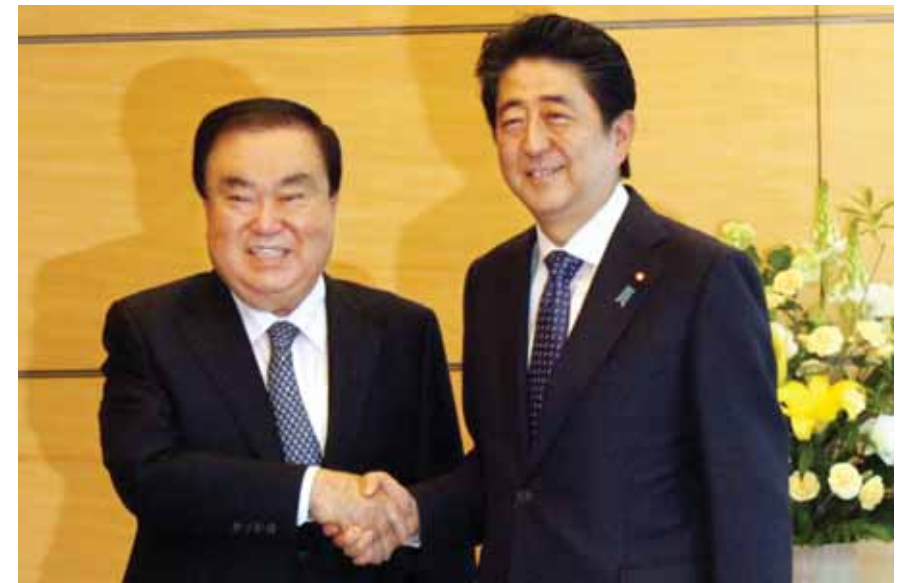
연장선 위에서 있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경남 거제시가 관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대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해 관광지로 삼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 생가를 복원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곤혹스럽다”며 “탈권 위,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는데 자칫 거제시의 이런 입장을 담은 보도가 대통령의 행보와 배치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한·일 정상외교 본격화

홍석현 특사 트럼프 대통령, 문희상 특사 아베 총리 면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새 정부의 한미 간 정상외교가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국 정상 간 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이 이미 다음 달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

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우리 정부 측 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문 특사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도쿄(東京) 총리관에서 30여분 간 아베 총리와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새 대통령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그만큼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본다”며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특사, 아베와 악수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인 문희상(왼쪽) 전 국무부장이 18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역에서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